



마음 찾아가는 길목 <상>

이정숙 (시인)

몇모르고 처음으로 108배라는 걸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불상이 있는 곳은 다 절인 줄 알았던 시절이었다. 정방이 따로 있다는 것, 사이비 법당이 무수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던 시절. 친구를 따라서 세검정 산꼭대기에 제법 번듯한 암자를 가게 됐다. 대통령 부인도 다닌다는 유명한 절이었다.

암자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는 바짝 긴장했다. 스무 평 남짓한 방 정면에 그 벽면을 가득 채운 백관세음보살상을 배경으로, 한 여인이 연분홍 한복차림으로 곱겹이 쌓아 올린 높은 보로 위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었다. 마치 벽면의 보살이 내려앉은 듯 상호가 좋았고 약간 비만한 몸매무세가 분위기를 압도했다.

오후 두시로 예약하고 갔는데도 기다리는 사람이 스무 명 남짓했다. 비밀도 없이

친구따라 가서 만난 보살 직장문제 고민 풀어줘 正法 아닌 곳서 인연 싹터

모든 사람이 함께 듣고 있었다.

“음, 아우 왔구면, 기다려.”

그 여인이 친구를 건너다 보며 아는 체를 했다.

경상도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는 여인의 음성은 맑고 부드러웠으나 위엄이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삼주(그녀는 시를 보지 않고 년 월 일 三柱만 봤다를 적어 냈다.

친구는 수년째 단골이라고 했다. 남편과 같이 왔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대뜸 한다는 소리가,

“승진 때문에 온 모양인데, 병원부터 가요. 지금 건강이 문제지, 승진은 나중 문제야, 몸이 좋아지면 다 저절로 좋아져... 병원 들렀다가 나중으로 와요.”



그림 · 김홍인

삼주도 내릴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 멀쩡한 남편은 마누라 때문에 망신당했다며 난리야... 하지만 병원에 가보란 소리가 걸려서 병원엘 갔지 뭐.” 종합검사 결과 친구의 남편은 체장을 들어내는 수술을 했고 완쾌 후 승진을 했다며, 그 이후 계속 대소사를 상담하

며 한다고 했다.

차레가 됐다. 그 여자는 나를 힐끗 건너다보더니 친구와 수인사를 끝내고 삼주를 풀기도 전에 특하고 한마디를 던졌다.

“왜 직장 바뀐 거 보려고? 지금 있는 병원도 괜찮은데...”

숨이 멈출 것 같았다. 직장에 관한 일을 물으려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병원에 근무

하고 있는 일은 친구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친척 한 분이 산부인과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곳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다가, 낙태수술의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곳으로 평판이 좋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다. 마침 여고 교사 자리가 생겨서 옮길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집어냈다.

“수입이야 병원이 좋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훨씬 좋지. 선생님은 가문이기도 하거든. 돌아 갈 때 법당에 가서 108배나 좀 하고 가요. 병원에서 좋은 상담만 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상담만 한 거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 나는 법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상담의 반 이상이 낙태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였고, 의사의 책임이 문제될 때를 대비한 형식적인 만류가 내 뱀이었고 그 기록을

108배 권유에 '까짓거' 도전 10년 절하기 수행 계기 돼 점차 미혹 벗고 지혜향한 삶

남기는 일이었다. 늘 그 일에 회를 느끼고 있던 터여서 겁도 없이 108배에 도전했다. 그때의 상황으로는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았다.

좋은 상담만 한 거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 양심이 찢리기도 했다. 법당에서 3배 이상 해본 적도 없으면서 까짓거 못하랴 싶었다. 108배는 생각 보다 힘들었다. 친구의 부축을 받고 겨우 계단을 내려왔다.

“정말 이상해, 어떻게 병원에 있는 줄 알지? 크레솔 냄새가 몸에 배었는데도 몰라. 하지만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걸 어떻게 알지...”

그 날의 놀라움이, 다리가 아파서 3일이 나 공공 앉은 참회의 108배가 나를 여고 선생님으로 탈바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날의 108배가 10여 년 간 절 수행을 하는 계기가 됐고, 그 삼주 보살과 개인적 친분을 맺게 됐다.

나는 심심하면 삼주 보살을 찾았다. 거기만 하면 그녀는 108배를 시켰다.

“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자식들이나 남편이 잘되고 너도 건강해진다. 7일을 매일 108배씩 해 봐. 좋은 일 있네...”

나의 불법 인연은 이렇게 정법이 아닌 곳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점차 미혹을 벗고 밝은 지혜를 향하는 인과의 씨앗을 심은 셈이다. (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하>



이종린 총의소아과 원장

그러나 여전히 외로웠다. 왜 그 많은 선지식들께서는 행원에 관해 말씀이 없으신 것일까. 과연 화두를 들지 않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는 것일까. 화두 타파 없이는 결코 견성하거나 성불할 수 없다는 큰스님들의 말씀은 더욱 이런 회의를 깊게 하였다.

그런데 그 의문을 풀어주시신 분이 불공사의 광덕 큰스님이셨다. 정말 기뻐다. “보현행원은 일체 중생이 부처님임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꺼져가는 내 안의 불성을 키우고, 사회적으로는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어 우리 모두의 불성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깨친 후에야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번뇌 가득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당장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현행원을 통해 아쉬움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소나무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달이 떠 올라 무명의 밤하늘을

이 너의 아픔을 싹 닳게 해줄게” 하는 축복을 드린다. 그리고 ‘어서 이 아이들이 빨리 나아서 부모님 걱정 근심을 달게 하소서’ 하고 관(觀)하고 원을 세우는 일도 있지 않는다. 작은 부처님들이 어서 빨리 자라 큰 부처님 되어 일체 중생의 복밭을 일구기를 바랄 뿐이다. 보리심을 잊지 않으면 전화를 받는 것도 공부요, 찾아오시는 분들

“지금 이곳이 수행처” 광덕스님께 배워 “부처공양·중생공양 실컷 하자” 서원

조금씩 비추이기 시작했다. ‘세간 속에서 해탈 얻으리라. 있는 이 자리에서 수행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바로 행복하게 해주리라, 부처님으로 만들어 드리리라’ 다짐했다.

부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정토이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근무하는 일터를 도량 삼아 ‘홍익암’으로 부른다. 아침에 홍익암에 출근하면 잠시 입정 후 ‘주위의 모든 아픈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좋은 벗이 되겠다’는 원을 시작으로 삼귀의 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보현행원품>을 일독하고 염불정군, 발원으로 하루를 연다.

환자가 없는 한가한 시간이면 짬짬이 경전공부를 하거나 참선을 한다. 사이사이 부모님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저 아이들 꼭 낫게 하고 부모님들은 보리심을 발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발원과 함께 진료실로 나아가 환아들을 맞는다.

병원을 찾는 모든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반갑다. 너 참 이쁘구나. 이 봄 효자 되겠다. 선생님

잘 모시는 것도 공부요, 환자 잘 돌보는 것도 공부 아닐 수 없다.

특별한 발원에서일까. 우리 병원을 찾는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보다 비교적 잘 낫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비록 출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행의 흥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은 병원이라는 환경 때문이지만 보리심을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으리라.

불혹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회엄경>에서 “이 장엄한 법계가 모두 보현의 원력에서 나왔다”는 대목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웠다. 보현보살님은 이 세상을 장엄하게 만들 정도로 원이 크신데 나는 지금껏 욕심으로부터 살아와 눈을 씻고 봐도 원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무슨 원이든 하나 만들어 부처님께 꼭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공수공양원(廣修供養願)’으로 발전되고 다시 ‘중생공양원(衆生供養願)’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번 생은 부처님 공양, 중생공양 실컷 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고 있다.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 모집과정 : 수시모집
-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 역 학 : 초·중급 - 남/여분
- 사주명리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 관상학 (특강 2회) : 신기원선생
-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이 두었던 감동있는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희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hy@buddhapia.com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서 송광사, 봉도사, 법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기도를 하면서 영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면서 동양의의학 공신을 갖고 체험을 비롯하여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제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육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잘게하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엔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기나 가우스(세기)가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삼계(체식, 체변, 체면)의 즐거움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흥현의)

내신신의 건강과 내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자킴이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킴이 되었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포교·교육·사회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는 도량!

- 포교분야**
주간 도선법보, 월간 여성불교, 흥은동 포교당, 봉천동 포교당, 성주 대흥사, 안동 세심사, 하와이 무량사
- 교육분야**
재단법인 청담장학문화재단, 학교법인 청담학원 청담중고등학교, 도선불교 실달학원 교리반 경전반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혜명불교양로원, 혜명보육원, 각구 어린이집 11곳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학관음기도도량

주지 선묵 혜자 대종일동 합장
우142-871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4
전화 02)993-3161~3 / 팩스 02)993-3164 www.dosunsa.or.kr